

결혼 성공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

미혼이라면

미혼이신 분들은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보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사귀는 사람을 주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어기며 타협하면서 사귀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또 사귄 때에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사귀셔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오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시편 119:9-11) 깨끗하게 손만 잡고 키스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한번 허용하고 나면 자꾸 그 횡수가 늘기 때문입니다. 정욕이 앞선다면 결혼을 하시고, 학생이면 학업에 충실하고 데이트 같은 것은 피하십시오. 주님은 준비된 자에게 좋은 배필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데이트를 하지 마시고, 전도와 기도를 해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 결혼하지 마시고 포기 하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어쩔 수 없다며 안 믿는 자와 서둘러 결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를 전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준비해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멩에를 함께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멩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귀음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마귀)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고린도후서 6:14-18) 저자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주님을 배신하여 떠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 곧 영생을 포기하는 자는 에서와 같이 먹을 것을 향해 장자의 축복을 파는 것이고 이브의 말을 들은 아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잘 생겼고, 똑똑하고, 예쁘고, 착하고, 명예 있고, 돈이 많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자신의 삶이 망하느냐 흥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불리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복된 다윗의 왕족 라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회개하여 천국에 갔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결혼은 주님께서 인정하셔야만 복된 것이지, 인정하시지 않는 결혼은 자신에게 저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미혼이며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신 분은 배우자에 대한 기도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기도 리스트의 첫 번째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자, 말씀을 많이 읽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 능력이 있는 자 등을 쓰고 또 그들의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님이 좋아하고 허락할만한 사람을 써 놓으십시오. 저자는 이렇게 써 놓은 것을 거의 매일 100일 정도 기도하여 95%가 다 맞아 떨어진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좋아하는 스타일까지 적어놓은 그대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맞는 사람을 주기 원하시며 이것을 믿어야 믿는 대로 주님께서 주십니다. “네가 믿은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마태복음 8:13) 의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짚신도 짝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짝이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평생 결혼하기 원하시지 않는 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팀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사치가 아닙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한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이혼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다고

하여도 힘든 일이 생기게 마련이고, 집안의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서지 않는다면 마귀가 항상 방해하는 결혼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규정을 잘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내가 남편이나 직장, 자녀들을 주님보다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나, 돈, 직업, 오락, 자신의 취미, 자녀들을 주님보다 우선순위로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주님을 제일 먼저 중요시 여겨야 하고, 그 다음 순위로 남편 혹은 아내, 자녀, 직장, 건강의 순이 되어야 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1:3)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먼저 찾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아내나 남편을, 그 다음으로 자녀를, 마지막으로 직장을 챙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보다 우선시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명예 때문에 가족을 포기하여 버려두고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문제지만 이미 다니는 직장이 있으면서 더 벌기 위해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고 집안일을 모두 남편에게 미루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교회를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의 일 때문에 남편과 자녀에게 서운하게 행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안 믿는 남편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가는 것을 금한다면 주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 금식기도를 해야 되고, 남편이 모르게 기도와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 교회도 갈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 남편이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와 함께 살아야하고, 간음 외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결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그 전 아내나 남편과

사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주님께서서는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누가복음 16:18) 이혼한 자와 결혼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예수님의 법은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결혼하셨다면 회개하시고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마십시오. 간음 때문이 아닌 모든 이혼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언약을 깨는 간음죄입니다.

주님을 1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마귀가 오게 되고, 집안에 싸움이 나게 되며,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요한복음 10:10) 집안을 망하게 하는 어둠은 주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호세아 4:6)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잘 알지 못하면, 법을 어기게 되어 그것에 대한 저주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 대한 법을 몰라서 아이가 도로에 뛰어든다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아이라도 누구의 아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면 다치고 병들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죽고, 어둠이 오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이라도 주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자는 그것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법은 쉽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마태복음 22:37-40)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과 교제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말뿐 만인 사랑은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하지만 사랑은 악행들을, 불순종을,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고린도전서 13:6) 아무리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사랑은 정의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끔찍한 형벌들을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자들도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고 빨리 깨달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분이 좋던, 나쁘던 꼭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배우자가 믿는 분이면 꼭 기도를 하도록 각자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규칙으로 삼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최소 2시간을 기도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기도가 모자라게 되면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여 싸우게 되거나 서로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갈라놓거나, 나쁜 꿈을 주거나, 포르노를 보게 되거나, 바람을 피우게 만들어서 집안을 망쳐 놓습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집안은 엉망이 되고,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마태복음 26:41)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부자라고 해서 봐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선으로 두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또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0:10) 주님께서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거나 순교 당하기를 원치 않는 한, 나머지의 것들은 모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거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8-9) 만약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 때문에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즉 매일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매일 기도를 충분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죽일 수도

망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시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차에 치여 죽거나, 병에 걸려 망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송구스럽지만 그들이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지 않거나, 분명히 삶 어딘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거나, 말씀에 무지하거나 또 주님께서 축복하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자신이 크게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고(욥기 3:25), 같은 시간대의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과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욥이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망할 것이라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축복하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을 혼내지 않고 일주일 동안 매일 파티하며 먹고, 마시고 놀도록 그냥 놓아두어서 주님께서서는 악하게 사는 그 자녀들을 죽도록 내버려둔 것이지, 주님을 잘 섬기는데 시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곧이곧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잘 혹은 잘못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 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 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신명기 11:26-28)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요한복음 10:10)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허락지 않는 한, 바울처럼 독사가 물어도 살고, 배가 풍랑을 만나도 살고, 돌을 맞아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새 조차도 그냥 떨어져 죽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29). 예수님을 잘 믿어서 고난과 핍박은 올 수 있어도, 차에 치여서, 암에 걸려서 가족이 죽는 비참한 사태는 이유 없이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비판적으로 주님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무엇인가 이상하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있는지 성경에 비추어 보십시오.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네 하나님
너와 함께하느니라.”(여호수아 1:9)

여러분의 삶,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삶에 문제가 있든지, 기도를
하여도 중보기도를 하지 않든지, 죄, 교만, 귀신을 쫓지 않아서든지 등 어딘가에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